

書誌統整事業論 (一)

— On the Bibliographical Control —

劉 永 珉

1. 序 言

「바빌로니아」(Babylonia)사람들이 西紀前 40 乃至 30世紀 동안에 걸쳐서 粘土版 (Clay-tablet)에다 自己들의 生覺과 感情을 楔形文字로 아로사기 始作한 以來로, 西紀前 26世紀 蒼頡의 文字, 아니면, 13世紀 B. C. 의 殷墟文字의 發明을 거쳐, B. C. 20 世紀前後에 亶하여 價用되었던 埃及의 「파피루스」(Papyrus)紙 및 同國 「델타」(Delta)에 居住하였던 「페니키아」人(Phenician)에 依한 「알파벳」의 發展을 通하여, 또는 西紀前 3~2世紀間에 普及되었던 小亞細亞 「미시아」 「페루가몸」地方(Pergamum Mysia, Asia Minor)의 「羊皮紙」(Parchment) 그리고 A. D. 2世紀初 後漢 蔡倫의 創製인 紙類와 第13世紀 初葉의 高麗에서와 15世紀中葉 獨逸의 「구텐벨그」(Gutenberg)에 依한 活版術의 發明等等 一連의 記錄方便史를 겪어 오는 동안에 人類가 自己의 思想과 感情을 客觀世界에다 表現 記錄하였던 技術의 進步와 그 記錄量은 日進月步 增大하여 왔었으며, 이리하여 人類의 文獻에 對한 觀念은 漸次로 짙어져 왔었을 테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듯이 그 文獻을 管理하는데 對한 方法論이란 것이 考慮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文獻管理史 그중에서도 特히 書誌의 歷史는 相當한 時日을 經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음을 文獻을 通하여 우리는 容易하게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오늘날의 高度한 學術文化의 急速의인 發展이 結果한바는 各種形態의 文獻을 大量的으로 生産하게 하였던 것이어서, 每年 累積되어 가는 그 文獻의 增幅量을 一瞥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先進各國이 제마다 競爭의으로 年産 約1萬5千種以上式의 單行本을 生産하고 있고 또 全世界의 純學術誌만을 大略 5萬種으로 概算하여 그것에 실린 論文의 年間 生産件數 또한 最低 約 1百50萬篇(10(篇)×50,000(種)×(年)3(回)=1,500,000(篇))의 龐大한 產出量으로 推算되고 있어, 實로 文獻의 氾濫을 이루게 하였던 것이다.

如斯한 現實은 必然의으로 過去의 重複되고 消極的, 封鎖的이며 非科學的인 文獻의 管理方法을 勇敢하게 揚棄하고 거기에서 그처럼 高速度로 分進秒步하는 文獻의 膨脹量에 對處할만한 統一의이고도 開放的이며 合理的, 能動的인 새로운 文獻의 管理方法을 우리로 하여금 講究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왔다.

其中에서도 特히 時間的 乃至는 空間的인 制約을 克服하고 互相疎通할 수 있는 方向으로 書誌事業을 統整하려는 問題는 必야호로 世界的인 關心거리로 登場하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또한 周知하고 있는 바이다.

이와같은 문제는 특히 教育·科學·文化運動을 통하여 世界人民의 相互理解와 協力을 促進시키고 人類平和와 安全에 貢獻함을 目的으로 하여 組織 形成된 「유네스코」가 1950년에 主催하였던 「書誌事業改良會議」에서 勸告한바 研究와 奉仕를 中心課題로 삼아 「유네스코」를 中心으로 그 運動이 世界的인 「스케일」을 갖고 活潑하게 展開되었던 데서 부터 世界的인 것으로 提起되었던 것이다.

勿論 이러한 問題에 對하여는 過去에 있어서도 主로 文獻管理者 特別 이를 指示한다면 圖書館 專門職을 中心으로 하여 消極的으로 나마 論議되어 그 運動의 展開를 促求한바도 없었던것은 아니었지만, 第二次大戰後로는 이러한 問題解決에의 促求와 輿論의 形成은 非單 文獻管理 專門職들의 獨占事項으로부터 벗어나서 文獻을 다루지 않으면 그 自身の 研究나 調査를 繼續할 수 없게된 學問하는 學者와 이들의 理論과 「아이디어」를 實際面에 應用하여 反映시키는 專門家들을 爲始로 하여 모든 教養人들로 하여금 積極的으로 이 運動事業의 唱導와 그에의 呼應이 없을 수 없게된 問題를 深刻하게 提起시켰던 것이다. 特別 學者나 專門家들에 있어서 文獻檢索 乃至는 探索이라는 過程은 그들 自身の 全研究時間의 40%를 차지하는 程度의 致命的인 深刻性을 帶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書誌統整事業의 問題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무엇보다 먼저 研究와 調査에의 前提條件으로서 考慮되어야 할 關心事項으로 化하여 버렸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이 書誌統整問題를 言謂하고 있는 識者들의 그 몇%가 여기에 있어서의 그 가장 基礎的인 知識인

「書誌」라는 概念을 明白히 把握하고 있는 것일까? 勿論 本稿의 趣旨가 書誌學의 概念을 論究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 主旨하는바 路線에서 離脫할수는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書誌統制事業을 論함에 있어서도 이는 一應 「타취」하여야 할 事項이라고 여겨진다는 意味에서, 于先 書誌에 對한 若干의 概念把握을 爲하여 冒頭에서 우리의 貴重한 紙面과 時間을 割愛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諒察하시기 바라마지 않는다.

2. 書誌의 概念

그러면 一般的으로 말하여지고 있는바 「文物制度 乃至는 學問研究에 參考資料가 될만한 記錄」으로서의 文獻 即 記錄^①의 文化資料에 對한 書誌란 具體的으로 어떠한 性質과 內容의 것인가?

書誌(Bibliography)란 말의 始初는 後期古典時代 希臘(西紀前 3世紀頃)에서 淵由한 것이 었고, 그것이 含蓄하는바 「a writing of books」가 1763年 佛蘭西人 Du Bure 의 「Bibliographie instructive」에서 規定한 「a writing about books」의 意味로 變換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書誌^②의 概念은 그 歷史의 性格과 背景으로 因하여 多義的으로 理解되어 왔었고 이리하여 甚至於는 文獻生産의 理論과 技術 및 그의 分配事業까지를 包含시켜서 이를 文獻에 對한 一切의 知識으로 廣汎하게 把握하여 왔었음이 또한 事實이었다.

그러나 這間의 事情은 如何튼간에 오늘날 書誌는 이를 크게 二大分하여 把握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圖書及 이와 類似한 文獻資料와 이에 關連된 事項을 一般的으로

로 研究하던가 또는 그들의 歷史를 系統的으로 研究하는바 綜覽의 書誌와, 各個의 圖書文獻에 對하여 分散的으로 涉獵研究하는 個別的 書誌로 나누워 보는 見解가 있어서 前者에는 圖書學·文獻學·資料學·古文書學 등을 後者에는 圖書解題·書目編纂·書目志·文獻目錄 등을 包含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書誌에 對한 「에스데일」(Arundell Esdaile)의 見解는 이보다는 若干 더 敷衍되어 이를 三分하여 說明하고 있다.

④ 그는 첫째로 分析的 乃至는 批判的 書誌(analytical or critical bibl.)를 들고서는 作品內容의 分析·編輯·複寫 또는 印刷의 經緯·著者·發行所·刊紀·體裁(裝幀·製本等)와 分配對象에의 適應性·分配方法·價格 등을 一一히 分析記述하는 資料研究方法을 이에다 結付시키고 있으며, 둘째로 그는 歷史的 書誌(Historical bibl.)를 들고 있어 이에서 資料生産의 歷史의 發展을 調査研究하는 것을 意味하는바 이를테면 資料의 「다아위니즘」의 「어푸로우취」를 想定하였고, 셋째로서 그는 體系的 書誌(systematic bibl.)를 들면서 그의 方法論으로서 著者事項·標題事項(含卷次·版次等) 出版事項(發行地·發行者·刊年) 및 對照事項(面數·圖版·規格等)의 書誌의인 諸項目內容을 一定한 原理와 順序에 따라서 網羅的·列學的으로 組織編成한 一覽表의인 것으로 規定하고 이에다 書目 또는 解題書目を 包含시키는 것이라고 論하고 있다.

그러나 또다시 進一步하여 우리의 눈에 日常的으로 익은 「쇼어」의 書誌에 對한 五分法은 좀더 具體的이라 生覺할 수 있다. 그는 書誌를 各己 目的에 따

라서 이를 몇가지로 分類하고는 그들을 그 態樣에 따라서 「資料一覽表의 役割을 하는 解題없는 簡單한 書誌(書目)」·「特定한 主題에만 局限된 것이 定壁에 가까운 網羅的·列學的 書誌」·「解題붙인 叙述的 書誌」·「評價的·批判的 書誌」·「著作者와 著作物에 關하여 同時에 取扱하여 놓은 傳記的 書誌」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들 三者의 各己 見解는 相互牽連關係에 있는 것으로 이들 各己 類分된바는 互相 그 어느 「카테고리」에 包攝되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이처럼 多岐的으로 區分되는 理由는 그 類分方法上의 精粗와 그 限界區截上의 差異에서 派生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三者의 諸見解中에서도 特히 「쇼어」는 繼續하여 敷衍하기를, 圖書나 遂次刊行物·繪畫·地圖·필름·레코오드·博物館資料·原稿·其他 이와 類似한 文化的 媒介物을 筆記나 印刷, 寫眞 乃至는 其他 方法을 通하여 生産된 文明記錄으로서 考察하고, 이에 對한 叙述의인 一覽表를 體系的으로 이루는 「백너」로서의 書誌를 다시 問題解決을 爲하여 呼應할 수 있는 세가지 機能으로 分類 把握하고 있다.

⑥ 即 그는 이들을 文獻의 混鈍의 「도가니」에서 必要로 하는 極少數의 資料를 選擇하여야할 境遇에는 그中에서 어떠한것을 擇할 것이냐에 이르렀을때 그 選擇을 爲한 補助的인 役割을 하는 Tool로서의 書誌(bibliography as a selection aid)와 書誌의 事項의 不足한 點 乃至는 不正確한 事項을 爲한 補充的이고도 照合的인 情報提供의 役割을 하는 書誌(Bibliography as an information source for identification) 및 第二次大戰以後부터 參考係의 業務로

轉換된 「더큐멘테이션」의 機能을 나누어 들고서 거기에서 그는 새로히 把握된 바 모든 記錄을 蒐集하여 이들을 主題에 따라서 類分編成하므로써 研究家들이 隨時로 利用할수 있게끔 만드는 過程을 들었고, 同時에 이러한 方法을 通하여 最近의 研究結果를 明白히 指摘해 내므로써 同一乃至는 類似한 研究를 거듭하고 있는 研究家들에 對하여 새로운 事實과 發見된 事項을 提供하여 重複된 時間의 浪費와 情熱消耗없기를 期하므로써 보다더 새로운 發明과 發見을 爲한 促進의 契機를 만들어 주는것이 여기의 「더큐멘테이션」의 役割이라 하였다.

또한 「쇼어」는 書誌가 다루는 「스코우프」(範圍)에 따라서 또다시 세가지로 이를 分類하여 觀察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른바 「選定書誌(書目: eclectic bibliography)와 各國書誌(國內書誌: National bibliography) 및 萬國書誌(國際書誌: Universal bibliography)의 三型이다.

이리하여 그 첫째의 것에서 ⑦는 時間과 場所의인 制約을 받음이 없이 어느 特定目的下에 選定된 良書에 對한 一覽의 記錄을 意味하였고 例로서 Shores' list of books for college libraries나 Standard catalog for high school libraries 또는 Basic book collection for elementary school libraries들을 擧示하고 있다. 그다음의 것에 있어서도 그는 單一國家나 單一言語라는 制限을 두고 그 國家內에서 出版되기 始作한 以來의 모든 文獻資料를 廣汎로 包括의으로 包容하는 特徵을 갖는 것이 國內書誌의 「카메고리」에 드는 것이라 說明하고는 例로서 U.S. Catalog 또는 Cumulative Book Index와 Publisher's wee-

kly나 P.T.L.A.(Publisher's Trade list annual)등을 例示하고 있다. (特히 P.W.나 P.T.L.A.의 兩者는 文獻의 商去來目的으로 編成된 것임은 勿論이다.) 그 세번째의 것으로서의 國際書誌에 對하여 또한 그는 말하기를 이種의 書誌는 時間的乃至는 空間的制約 또는 主題內容에 制限됨이 없이 或은 그 目的이나 言語的인 拘碍를 받음이 없이 超然的으로 모든 人類의 文化의 所産을 記錄한 모든 種類의 文獻資料를 包含시켜 列擧記錄하는 것이 이種의 書誌에 屬하는 것이라 하면서 Brunet의 Manuel de libraire라던지 Library of Congress의 Catalog of books 또는 British Museum의 General Catalogue of Printed Books 或은 Bibliotheque National의 Catalogue general des livres imprimes 등으로써 例證하고 있다.

大略 叙上에서 一瞥하여 온바가 우리의 關心之事인 「書誌」의 性質과 內容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斯上의 內容에서 처럼 書誌에 對한 複雜한 各個의 見解에 對하여는 筆者대로의 그 어떤 綜合的인 見解披擬이란 것이 있어야 할 것이 겠으나 이를 敢行하여 形成되는 또하나의 重複的인 書誌의 概念을 論決 構成하는 것이 반듯이 賢明한 노릇은 아닐 것이므로 해서 이들 諸見解를 그것대로 引用, 紹介하는데만 끝이므로써 讀者諸位 各自대로의 妥當한 概念把握의 餘裕를 남겨 두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書誌學者 아닌 筆者가 前提로 하는 本項의 牽直한 趣旨인 것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 號에 繼續)

(筆者·서울大 師大 講師)